

꼬마 도깨비 또치의 지옥여행

이슬기 글·황명희 그림

지경사 / A5신 / 208면 / 2500원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꼬마 도깨비 또치가 '세상구경'에 이어 지옥을 여행하게 된다는 장편장작동화.

말썽구러기 도깨비인 또치는 어느날 우연히 뽕소니차에 치어 죽게된 지훈이의 몸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가 도깨비 엄마가 에타게 자신을 찾는 신문광고를 보고서 고향집에 달려가지만 마침 식물인간으로 투병중인 지훈의 육신이 간호사 언니의 실수로 지옥사자에게 붙잡혀가게 된다.

착한 마음을 지닌 또치는 지훈이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지옥으로 가서 명부를 고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다.

광호의 일기 2

김광호 글·박현자 그림

신원문화사 / A5신 / 244면 / 2500원

일가족과 함께 고기잡이배에 생사를 걸고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씨의 막내아들 광호군의 서울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일기 모음.

KBS 사회교육방송에서 직접 낭송하기도 한 방송원고중에 1988년 6월14일부터 9월1일 까지의 일기를 한데 모았다. 월남 후 삼푸의 용도를 몰라 머리가름으로 오해했던 일, '동무'라는 말을 사용해서 곤혹을 치렀던 큰형의 일 등 서울생활의 에피소드와 함께 학교생활의 재밌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서로 다른 두체제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야 하는 한소년의 일기에서 가슴을 적시는, 티없이 맑고 진지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꿈지머리 꿈꿈

엘렌스 레이 지음 / 허순봉 옮김

가나출판사 / A5신 / 222면 / 3000원

1980년에서 1982년에 발표된 프랑스 여류작가의 네권의 연작동화를 한데 묶은 장편동화. 머리를 두갈래로 땀은 아홉 살짜리 꼬마아가씨 줄리에트는 부모님의 간섭에 당당하게 맞서나가는 맹랑한 소녀.

부엌일은 오빠도 똑같이 나누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열도당도하지 않은 시를 써놓고선 장차 시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부모님 몰래 멋진 뮤지컬을 만들어 어설피 어린들의 흥내가 아닌,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보인다.

프랑스 여권성에서 제정한 '알리스 상'의 수상작인 이 작품은 어른들이 잊어버린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

어린이에게 주는 선생님의 동시

어린이 독서문화회 엮음

윤진 / A5신 / 206면 / 2500원

이해하기 쉽고, 기쁜마음으로 즐겨 읽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시만을 골라 엮어 낸 동시집.

교사들의 작품만을 실었는데, '아카시아 꽃꿀을 먹으며'를 비롯해 4부로 나누어, 김동규의 「땅땀기」와 정용채의 「엄마손」 등 모두 116편의 작품을 실었다.

“마디 굵어진 / 어머니의 손은 / 따스한 이불 속 / 드셔도 / 마디 마디 / 아픔으로 / 쓰러렸지요.”

'어머니의 손'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고마움을 노래한 시편들이 깨끗한 동심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

책끝에 동요와 동시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동요·동시 읽는 법」을 덧붙였다.



명심보감

진동일 글·그림 / 김성원 감수

명문당 / A5 / 250면 / 2500원

중국 명나라의 범인본이 썼다고 알려진 원본을 어린이들이 읽고 느끼기 쉽도록 재밌는 그림과 곁들였다.

예부터 어린이들의 인격수양을 위한 필독서로서, 서당의 부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던 상하 2권 20편 774조목의 원본을 「계선편」 「천명편」 「순명편」 「효행편」 「정기편」 「존심편」 「치가편」 등 23편으로 요약, 나누어 실었다.

글귀중에 나오는 인물들의 약력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 어려운 한자와 더불어 선인들의 행적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이야기속의 상황을 그림으로 풀어 쉽게 이해하도록 한 점이 특징.

어린이들의 한자습득과 올바른 행동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책이다.

별이 물려온 마을

박상규 지음

대원사 / A5신 / 232면 / 2500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현직교사인 작가의 창작동화집.

이미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등의 작품집을 낸바 있는 작가의 「별이 물려온 마을」 「고민하는 아이」 등 5편의 단편동화와 빈농의 도시이주로 인한 이야기를 담은 장편동화 「시골에서 온 소녀」를 함께 실었다. 농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도시 사람들에게 침식되어가는 농촌의 터전을 그려내고 있는데, 교육자 이오덕씨가 추천하는 '권하는 책' 시리즈 중의 하나.

“나 역시 지은이와 같이 농촌이 살아야 우리 겨레가 살아 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는 추천이유가 책머리에 밝혀져 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세익스피어 지음 / 허순봉 엮음

가나출판사 / A5신 / 222면 / 2500원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문호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동화형식으로 엮은 책.

평민 의사의 딸인 엘레나라는 처녀가 귀족 가문의 젊은 베르트람 백작을 짝사랑한다. 신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명한 엘레나는 묘안을 짜내서 결혼에 성공하지만, 베르트람 백작은 결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전정터로 떠나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운과 역경 따위는 마지막의 결과가 좋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내용을 담은 희곡을 어린이들이 읽기 쉽고, 감명을 받도록 써여져 있다.

세계의 명작을 아동물로 바꾼 '세계명작 펄컨문고' 시리즈 중의 스물 한번 짝권.

미오, 움움, 미라미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 서경애 옮김

반도 / A5신 / 206면 / 3500원

'국제 안테르센 작가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동화작가의 장편동화를 스웨덴에 거주하는 교포가 우리말로 옮긴 책.

「어린왕자」를 연상케하는 꿈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내용을 실고 있어 어린이와 함께 어른들이 읽어도 교훈과 감동을 받을 만한 책이다.

한글로 된 동화책이 없어 매일 2~3페이지씩 번역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가 결국 한글판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번역의 동기가 특별하다.

“내가 고아였을 때 사람들은 나를 부우 빌헬름 울손 혹은, 부세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본디 내 이름은 미오예요. ‘왕자 미오’말이에요.”